

우승 카운트다운 광주FC, 홈에서 승점 사냥

내일 김포와 홈구장서 맞대결
다득점·개막전 패배 설욕 다짐
2위 안양과 승점 10점차

K리그2 우승 확정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광주FC가 올 시즌 상대전적 1승 1무 1패로 호각세를 보인 김포FC와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갖는다. 3일 오후 6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2 37라운드다.

광주의 올 시즌 잔여 경기는 김포전을 포함해 7경기다. 다른 팀 승패와 관계없이 산술적 계산만으로는 5승을 거두면 K리그2 자력

우승을 확정한다. 현실적인 상대전적까지 감안할 경우 2~3승만 하면 우승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승을 위해 김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다.

광주는 개막전 첫 맞대결에서 김포에 1-2로 패하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2차전은 광주가 2-1로 이겼다. 가장 최근 만났던 24라운드는 득점 없이 0-0으로 끝났다. 1승 1무 1패씩 나눠 가진 두 팀은 3일 경기가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1-2로 패하며 무패행진이 11경기에서 멈췄다. 2위 안양과 승점 차는 10점이지만, 안양이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다. 아직 연패가 없는 광주는 김포를 반드시 잡고 안양과 격차를 벌리

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부천전 패배의 아쉬움을 오히려 쓴 보약으로 삼고 우승과 승격을 향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각오다.

부천전은 곳은 날씨 속에서도 투지가 빛났다. 선제 실점 이후 후반전에 나선 광주는 강한 전방 압박과 오버래핑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다. 특히 후반 7분 박한빈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 크로스를 올렸고, 헤이스가 강력한 헤더로 시즌 12호골에 성공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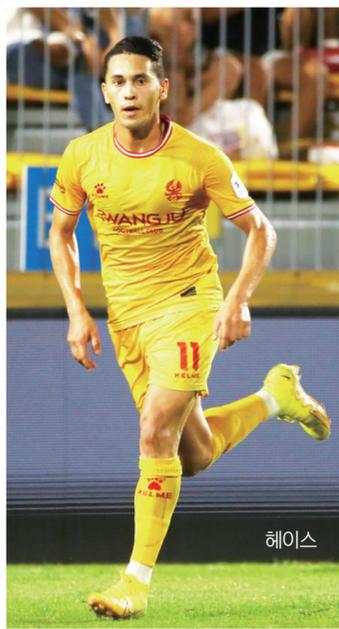
산드로는 공중볼 장악은 물론, 연계플레이와 강력한 슈팅으로 광주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견희와 허을도 출격 대기를 마친 상태다.

이희균과 정호연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살

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김종우는 부드러운 드리블과 날카로운 키패스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라운드 결장했던 이순민까지 복귀하며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포는 8승 10무 15패로 현재 7위에 머물고 있지만 쉬운 상대는 아니다. 게다가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쳐 분위기 광주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김포에게 '광주 원정 승리'는 더할 나위 없는 반전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올해 8승 중 5승을 원정에서 따냈다.

광주는 체력적 우위와 홈 이점을 안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다득점을 노리고, 지난 홈개막전 패배의 복수를 하겠다는 각오다. /조혜원 기자



헤이스



상대 수비수에 겹겹이 에워싸인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가운데)이 1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2-2023 EPL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한 뒤 볼이 골대 밖으로 향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5경기째 '잠잠' ... 손흥민, 무거운 발걸음

부담감·상대 견제 심해져
새 선수 가세 전술 영향도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해를 보낸 손흥민(30·토트넘)이 새로운 시즌 초반 예상치 못한 '골 침묵'에 빠져 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2-2023 EPL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골타임을 뒤흔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5경기째 무득점이다. 사우샘프턴과의 1라운드(4-1 승)에서 결승골 도움을 작성한 게 이번 시즌 유일한 공격 포인트다.

지난 시즌 총 23골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으나 손흥민의 초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의 리그 개막 '5경기 골 침묵'은 근래

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득점왕을 차지한 지난 시즌엔 맨체스터 시티와의 개막전부터 골 맛을 봤고, 리그 17골을 넣었던 2020-2021시즌엔 사우샘프턴과의 2라운드에서 4골을 폭발하며 기세를 올렸다.

리그에서 11골을 남긴 2019-2020시즌엔 초반 퇴장 징계로 결장하다가 3번째 출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멀티 골로 득점포 가동을 시작했다.

2018-2019시즌에 리그 10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게 최근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당시에는 1라운드 이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우는 변수가 있던 시기였다.

이후 3차례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하면 손흥민의 득점포 시동이 늦게 걸리는 상황인 건 사실이다. 팀은 개막 5경기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나 손흥민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른 뒤 더 잘해야 한다는 손흥민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플레이 모습에서도 느껴진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더 대비하고 심하게 견제하는 것도 아직 골이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한 토트넘의 상황과 전술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즌 합류해 손흥민과 같은 측면에서는 왕백 이반 페리시치의와 호흡이 대표적이다.

최근 영국 BBC에 실린 한 칼럼에선 "손흥민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의해 창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그가 깊은 위치로 내려가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공격에 관여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토트넘은 3일 풀럼과 EPL 경기를, 8일엔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첫 경기를 차례로 치른다. /연합뉴스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광주 7개 선정

광주지역 7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첫 시행한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됐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8개 클럽이 신청해 ▲동구스포츠클럽 ▲서구스포츠클럽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송원스포츠클럽 ▲빛고을스포츠클럽 ▲동강공공스포츠클럽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등

7개 클럽이 선정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 확보', '수준별, 연령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서면평가, 사업계획 평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클럽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지원사업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들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광주의 미신청된 1개 클럽은 오는 11월 중 재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 자격은 3년간 유효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지정스포츠클럽 혜택으로는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익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진화 기자

KS 끝내기홈런 주인공 KIA 나지완 은퇴

"후배와 팀 미래 위해"

지난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KIA 타이거즈 나지완(37)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나지완은 1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은 나지완의 뜻을 받아들였다.

나지완은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현역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로 뛰는 15년 동안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팀의 고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 부상과 부진으로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최고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KIA 구단은 나지완의 은퇴식과 향후 진로에 대해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08년 2차 1라운드(전체 5순위)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나지완은



나지완

KBO통산 15시즌 동안 1,472경기에 출전, 1,265안타(221홈런) 862타점 668득점 OPS 0.857를 기록했다.

특히 나지완이 기록한 221홈런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중전 김성환 207개)이다.

나지완은 데뷔 시즌이던 2008년 개막전에서 4번 타자로 출전하며 KIA 신인타자 최초의 개막전 4번 타자 타이틀을 차지했고, 팀의 중심타자로 활약하며 2차례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은 아직까지 KIA 타이거즈 역사를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7년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도 승부에 쐬기를 막는 3점 홈런을 터트리며 '한국시리즈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혜원 기자

여자축구 대표팀, 내일 자메이카와 친선경기

월드컵 대비 조직력 점검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벨로가 자메이카와 스파링을 펼친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3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 '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나선다. 모든 초점을 내년 월드컵에 맞추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 대표팀의 조직력을 점검한다.

2015년 캐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게 최고 성적인 한국은 그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하는 성과를 내려면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월드컵에서는 더 많은 강팀을 만나는 만큼, 대회 전까지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9월 A매치 기간에는 낯선 자메이카를 상대한다. 자메이카와 한국 여자 대표팀이 대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벨 감독은 "자메이카 선수들 대부분이 잉글랜드와 미국 등 수준 높은 리그에서 뛰는 것으로 안다. 피지컬이 좋고, 팀 전력도 탄탄해 좋은 상대가 될 것"이라며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자, 스타일이 많이 다른 팀을 맞아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볼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장우 한국실업육상 챔피언십 도약 1위

김경태, 대회 초대 챔피언

장흥군청 김장우(23)가 1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끝난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FT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에서 도약 부문 1위에 올랐다.

김장우는 남자 세단뛰기에 출전, 16m73으로 1위에 오르며 랭킹 포인트 1,436점을 얻었다.

이번 대회 초대 최우수선수(MVP)는 김경태(25·국군체육부대)가 차지했다. 김경태는 남자 110m 허들 결선에서 13초92의 2022년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김장우

랭킹 포인트 1,479점(순위 300점+기록 1,179점)을 받았다. 전 종목 선수 중 최고 점수였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코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했다.

단거리 부문별 1위이자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김경태는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챙겨 총 600만원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